

# 독립정신

44호 2009년 3.4월호

이 달의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와 가족

특별기고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_서홍관 박사  
“이 시대의 독립정신이 거기 있었네”

특별기획

90주년  
대한민국 건국 90주년  
임시정부가  
꿈꾸던 나라  
-임시정부가  
꿈꾼 정치



독립정신  
사진으로 보는



이시우 — 사진작가

## 블라디보스토크역

레닌의 손끝이 가리키는 유라시아를 향해  
 새벽기차에 몸 싣던 운동가들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연장선이 다른 이의 그것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 부릅니다.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의 꼭지점만을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전망이라고 부릅니다.  
 미래란 마음의 지도입니다.

— 시로 읽는 독립정신 —

#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작자 : 김구(1876-1949)

네 소원이 무엇이나 하고 하나님께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네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나 하면  
나는 또, “우리 나라의 독립이요.”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나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하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해설 :** 白凡 金九 : 한국현대사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이며 정치인인 백범 김구 선생은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한다면 당장이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  
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고 결연히 3천만 민중에게 호소하  
신바 있다.

‘나의 소원’은 선생의 애국애족사상이 오롯하게 녹아있는 백범일지에 수록되어 있다.

홍일선(시인, 한국문화평화포럼 사무총장)

2009 3\*4

통권 44호

# 독립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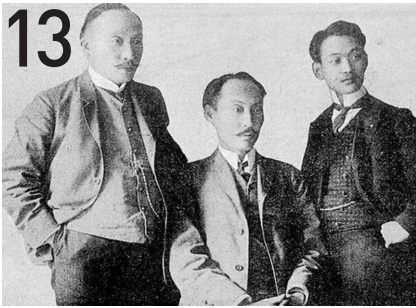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7

04 권두언  
임시정부가 꿈꾼나라 | 한홍구

07 이 달의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와 가족이야기 | 김정애



13

13 특별기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적 승인 | 맹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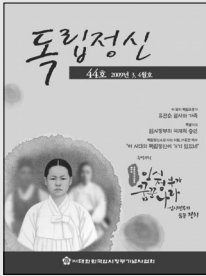
2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임시정부가 꿈꾼 정치 | 김삼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그 기본정신 | 김영수



35

35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알제리 전투 | 이두희





표지사진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준수, 김지용, 신명식, 이찬희, 이재승, 김동완  
학생편집위원 | 조영빈, 정승임, 홍용희, 인솔지, 조수정, 조정의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39 특별 기고  
故 곽태영 선생의 삶과 투쟁 | 정동의

44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_ 서흥관 박사  
이 시대의 독립정신이 거기 있었네  
| 정승임 인솔지 조수정

48 청년특집\_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다  
백범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  
| 조영빈 조정의

52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55 임정서가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 김명섭



■ 권두언

#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 부교수

2009년은 3·1운동의 90주년이 되는 해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또한 9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독립운동의 전체 역량을 결집시키려 노력했던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는 좌파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또 그들은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따져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은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하는가 말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3·1운동과 임시정부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없다. 역사교과서에도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제법 비중 있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세우려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나라를 되찾으면 임시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이민족의 지배에 허덕이던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약속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다. 아니, 교사 연수를 다녀보면 학생들에게 이를 교육해야 할 역사교사들도 임

시정부의 강령이나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소모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 논쟁의 기준을 임시정부의 강령과 정책, 그리고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떠나서 국가정체성이나 헌법정신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요즘 국가정체성을 자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임시정부의 강령이나 주요정책은 물론이고 제헌헌법조차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민주주의의 뿌리가 미군정에 있다거나, 일제의 지배가 한국현대문명의 초석을 놓았다거나 하면서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을 보면 우리는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는가 탄식하게 된다.

### 대한민국 역사의 시발점 임시정부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배와 분단과 전쟁과 군사독재라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달성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민족의 통일이나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등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치른 희생과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을 놓고 참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점 역시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이 제헌헌법에 어떻게 계승되고 실제로 구현되었는가이다.

우리는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현재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물어야 한다. 이 작업이야말로 21세기의 우리가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은 그냥 술하게 지나가는 수많은 기념사업의 하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상황은 우리의 출발점과 현재를 되짚어보며 미래를 모색하게 만든다.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은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 ■ 권두언

우리는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현재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물어야 한다.


이 작업이야말로 21세기의 우리가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은 그냥 술하게 지나가는 수많은 기념사업의 하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상황은 우리의 출발점과 현재를 되짚어보며 미래를 모색하게 만든다.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은 우리가 10년 뒤에 맞이하게 될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며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았던 선열들처럼 우리도 하루하루에 쫓기지 말고 10년을 준비해야 한다. 임시정부가 꿈꾸었던 나라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였는지를 점검해보자.

### 울림이 있는 임시정부

임시정부는 출발부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였으며,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하여 좌우합작을 천명하였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좌우합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임시정부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은 중요산업의 국유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 무상교육, 무상치료, 남녀평등, 파업의 자유, 8시간 노동제 등을 민족구성원들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대부분은 제헌헌법에 반영되었다. 흔히 법은 딱딱하거나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제헌헌법을 읽다보면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울림이 있다. 이 아름다운 내용을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임시정부가 언제 세워졌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임시정부를 세웠던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되찾으면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꿈꿨던가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마음 속 깊이 사랑하는 첫 발을 떼는 것이다. 



# 유관순 열사와

# 가족 이야기



김정애

유관순 열사 기념 유족장학회 회장  
(사)3.1여성동지회명예회장

금년은 유관순 열사(柳寬順 1902~1920,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가 옥사한지 89주년이 되는 해이고, 3·1운동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 여학생 유관순과 그 가족이 광복을 위해 어떻게 헌신 하였으며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던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유 열사께서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 재학 중에 기미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학교 담을 넘어 서울시위운동에 참가했고, 3월 5일 서울에서 학생단 시위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화학당 친구들과 함께 이 시위운동에 참가했다가 경무총감부에 붙잡혔으나 풀려났습니다.

3월 10일 각급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져 3월 13일 유예도(柳禮道) 사촌언니와 함께 천안 병천으로 귀향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이종성(李鍾聲)이라는 경성 제 1 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청년이 만세운동을 계획했다가 발각되어 잡혀갔기 때문에 청년들은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아우내장터 만세시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먼저 매봉교회 어른들과 유림어른들과 대성(大姓)의 어른들을 움직였습니다. 연락책임을 맡았던 이화학생 유관순과 사촌언니 유예도(애다)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짚신을 신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한 유예도는 이튿날 앓기 시작하여 그후 함께 활동할 수 없었고, 유관순 학생 혼자서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3월 31일(음력 2월 그믐)밤에 동생 관복(후에 인식(仁錫)으로 개명)과 친척 제한(濟漢)에게미리 준비한

## | 이 달의 독립운동가 |



▲ 유관순 열사와 부모님(상상이미지)

여러 자루의 화를 들리고 매봉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화에 불을 당기고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팔을 높이 올렸습니다. 바람을 만난 횃불은 더욱 맹렬하게 타올라서 어둠을 헤치고 밝은 빛은 점점 넓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매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24개 불꽃이 그믐밤 하늘을 밝혔습니다. 내일(4월 1일)의 거사를 약속하는 횃불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음력으로 3월 1일이고 병천 장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경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아우내(병천)'를 뒤흔들었습니다. 평화적 시위 군중에게 왜헌병의 발포로 이화학생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柳重權, 1863~1919,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선열과, 어머니 이소제(李小弟 1875~1919,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선열의 순국을 비롯하여 순국자는 19명이나 되었고, 부상자도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화학생 유관순은 천안아우내장터 만세운동으로 체포되었고 5월 30일 공주법원에서 7년 형(6년 형, 5년 형이라는 설도 있음)을 받고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유중권, 이소제 두 분 선열 부모 밑에서 올곧게 성장한 유관순의 남매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치의 타협없이 일제에 맞서 싸움으로서 부모의 구국 독립정신을 당당히 지켜냈습니다.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 유관순 열사께서는 서대문 감옥에서 옥중 만세운동을 주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고문을 받고 방광이 터져 결국은 그 해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서울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 하셨습니다. 주권(主權)이 없는 민족에게는 최소한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윤기(柳潤基 1845~1919)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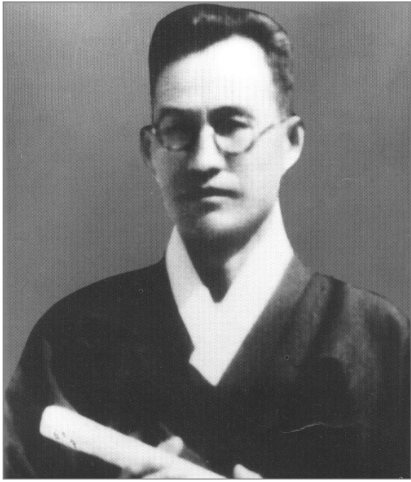
유관순 열사의 집안은 아우내장터 만세시위운동으로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유윤기(柳潤基, 1845~1919) 할아버지는 큰 아들 유중권(柳重權) 내외가 아우내 만세 시위 중 한날에 처참하게 죽고, 작은 아들 유중무(柳重武)와 손자 우석(愚錫), 손녀 관순(寬順)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린 손자 관복(冠福, 仁錫), 관석(冠錫=칠석<七錫>)은 부모 없는 고아가 되는 등 갑자기 몰아닥친 불행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우내 장터에서 희생된 큰아들 내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것도 유윤기 할아버지였을 것입니

다.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70세를 훨씬 넘긴 유윤기 할아버지에게는 갖가지 집안 일을 처리할 일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두 달 보름 뒤인 그 해 6월 16일 유윤기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유관순 열사 집안의 버팀목마저 꺾였습니다.

아우내장터 만세운동 이후 유관순 열사 집안사람들은 계속 감시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 백노(白奴)유우석(柳愚錫 1899~1968,건국훈장애국장 추서)선생



▲ 백노 유우석 선생

유관순 열사의 오라버니 유우석 선생은 3·1운동 당시 음력 3월 1일(음력 4월 1일) 10시에 12살 된 현덕 학생이 학교 종을 올리자 그것을 신호로 장꾼들이 일제히 공주 장터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부르기로 약속했던 분들이 다 나오지 않았으므로 많은 군중 동원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주 만세 시위운동으로 기소된 사람은 김관회(金寬會), 김수철(金洙喆), 이규상(李奎尙)등 영명학교 교사와 유우석, 노명우, 강운, 윤봉균, 양재순, 이규남 등의 학생과 여성으로는 김현경, 박루이사, 이활란 등 모두 18명이었습니다. 공주법원으로 이송될 때 유우석(柳愚錫)학생과 김현경은 인력거를 타게 되었는데 상처가 심해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주법원 마당에서 천안 아우내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잡힌 유관순 누이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때 관순의 소복차림으로 짐작은 했으나 통곡하는 관순 누이로 부터 부모님이 왜놈의 총칼에 쓰러졌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921년에서 23년 사이 배제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법학전문학교에서 수학 도중 조국수호회(祖國守護會)를 조직,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왜경에게 체포·구금 되었습니다.

1927년 거처를 원산으로 옮기고 원산청년회(元山靑年會)를 창립, 회장으로 활약 중 왜경에게 체포되어 이광(李光) 한하연(韓何然), 조시원(趙時元), 김연창(金演彰), 김신원(金信遠), 김광면(金光冕), 등 제동지와 함께 함흥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1923년 함흥, 단천 등지에서 조헌(趙憲) 선생과 항일운동을 지도하다가, 단천에서 구금 되고, 1934년 양

## | 이 달의 독립운동가 |

양, 강릉, 고성, 간성 등지를 거점으로 박망(朴芒), 김탁(金澤), 안형근(安亨根), 이원명(李元明) 동지 등과 설악회(雪嶽會)를 조직, 항일운동 중 양양에서 왜경에게 구금되었습니다. 1937년 강릉에서 체포된 후 7회나 모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을 때까지 26년간 항일전선에서 즐기차게 투쟁 하였으며 왜경의 온갖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관한 영화에는 성체가 작은 귀쪽에 담겨 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소문처럼 성체가 토막나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백노(白奴) 유우석 선생께서는 '토막이 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입관하기 전에 너희들의 관순(寬順)고모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평화스러운 얼굴 이었다' 라고 아들 제충(濟忠) 내외에게 말하였습니다.



▲ 조화벽 선생

**조화벽(趙和璧 1896~1975, 건국훈장 애족장)선생**

강원도 양양군 남문리에서 아버지 조영순(趙英洵) 장로와 어머니 전미흠(金美欽)전도사 사이의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나, 원산 루씨여학교를 거쳐 개성 호수돈여학교 보통과에 입학하고 고등과로 진학 하였습니다. 3·1운동을 맞이한 것은 호수돈여학교 졸업반 때였으며, 개성 만세시위를 선도하였던 어윤희(魚允姬)전도부인을 도와 만세시위에 참가 하였습니다. 만세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총독부에서는 3월 10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조화벽 여학생도 3월 말, 버선목에 넣은 숨을 뜯고, 독립선언서를 그곳에 숨겨서 가방에 넣어 갖고 귀향한 후 교회청년 김필선(金弼善)에게 전달하였고, 김필선은 김재구(金在龜), 김길용(金吉容), 김계순(金啓鎔), 김주순(金周鎔), 김봉운(金鳳運)등의 교회청년들과 함께 독립선언문을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4월 4일 장날 아침, 장꾼들이 모여들자 태극기를 배포하고 만세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평화적 만세시위 군중에게 총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 8명,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세소리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개성 호수돈으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치고 공주(公州) 영명(英明)여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유관순 이화학생의 두동생(관복, 관석)이 고아가 되어 영명학교 황인식 교감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친동생처럼 양육하고, 또 유관순의 오라버니 유우석(柳憂錫)학생이 공주 만세시위 운동의 주동자로 투옥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의 옥바라지에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23년 백노 유우석 선생과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배화여학교, 개성 호수돈여학교, 원산 유성(遊誠)여학교 등에서 받는 봉급에서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전하기 위해 같은 학교 교사인 임영신(任永信)선생과 함께 십일조를 떼어 보내고 독립운동에 전념하는 남편 백노 유우석 선생의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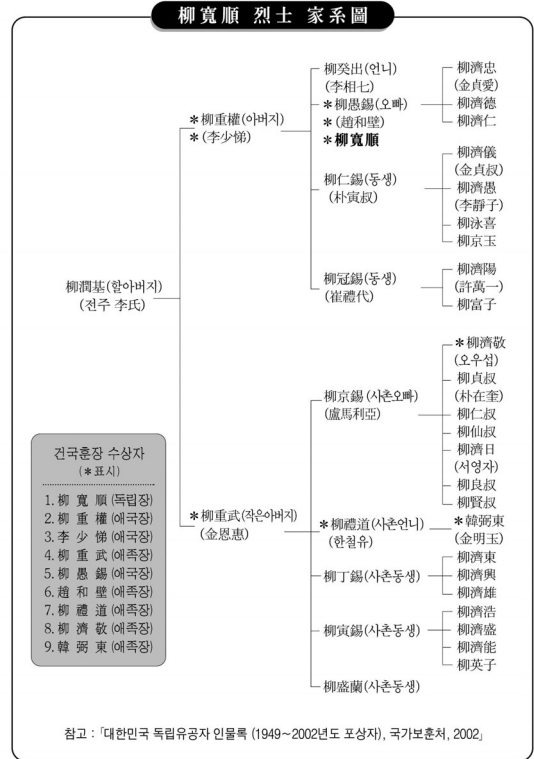
1945년 광복후 건국운동을 일으키시다가 소련군의 박해를 받고 월남 하였으며 임영신(任永信) 전 중앙대학교 설립자)선생과 박마리아 여사와 함께 건국운동에 참가 하였습니다.

1975년 9월 3일 80세를 일기로 고단했던 생을 마감하니 충남 천안시 병천면 지령리 백노 유우석(白奴柳愚錫)선생 곁에 안장되었습니다.

**유예도(柳禮道, 1896~1989 건국훈장 애족장)선열**

사촌언니 유예도(柳禮道)여사는 1896년생으로 유관순 열사보다 6살 위입니다. 유관순 동생이 이화학당에 갔을 때 먼저 가 있던 예도 언니와 같은 기숙사 방을 썼고 아우내장터 만세시위 때에 유관순 동생은 16살이었고 유예도 언니는 23살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1970년대) 필자(김정애(金貞愛, 1936~ 당시 3·1여성동지회 문화부장, 조카며느리)에게 '유관순은 목숨을 바쳤고, 나는 목숨을 바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아우내장터 만세운동 때 내 나이 23살이고 관순은 16살이었지, 만세운동 후 시골로 피신가서 나는 내가 시집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한철유 라는 분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지. 검거 당할까봐 죽어서 살았지. 내 가슴에 한이 많이 맺혀 있지' 라며 옛날 일을 회상 하였습니다.



▲ 가계도

| 이 달의 독립운동가 |



▲ 현당 유제충 선생

**현당(玄堂) 유제충(柳濟忠, 1925~1972 필자의 남편)**

1925년 4월 6일 개성 만월동에서 백노 유우석(白奴 柳愚錫)선생과 조화벽(趙和璧)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44년 춘천중학교를 졸업 후 일본 침략군에게 강제 징발되어 만주까지 끌려갔다가 탈출하여 광복(光復)을 맞았습니다. 1948년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예과를 졸업 하였습니다.

학생운동, 청년운동 정치투쟁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던 중 신병으로 학업을 중단 했다가 1958년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를 졸업 했습니다.

현당(玄堂) 유제충(柳濟忠)선생은 평소 독재를 물리치고 복지국가(福祉國家)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생운동, 청년운동, 정치활동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백조(白鳥)는 배가 고프다고 하여 아무것이나 먹지 않는다' 는 생

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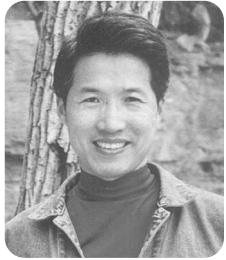
일제시대에는 온 가족이 항일운동에 헌신하고, 광복 후에는 반독재 투쟁에 헌신하였던 유씨일가(柳氏一家)의 가족사는 바로 한국근현대(韓國近現代史)의 한 서사시(敘事詩)였습니다. 3대(三代)가 독립(獨立)·애국(愛國)·교육(教育)운동에 몸 바침은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를 찾기 위함일 것입니다.

광복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했던 선열들의 저항정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인내심과 협동심, 자유정신(自由精神)을 배우며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문헌

- 한국여성독립운동사, 3·1여성동지회,중앙출판인쇄주식회사, 1980
- 타오르는 별, 박화성, 세운문화사, 1972
- 불꽃같은 삶, 영원한 빛 유관순, 이정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4
-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인물록 (1949~2002년도 포상자), 국가보훈처 2002
-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7권 국내독립운동, 국가보훈처, 1990
- 순국소녀 유관순, (사)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 1~6호
- 유관순 연구, 백석대학교유관순연구소 1~13호
- 대백과사전(大百科事典), 學園社, 1958
- 國史大事典, 百萬社, 1974
- 3·1여성 제14호, 3·1여성동지회, 1984

#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적 승인



맹강현(孟康鉉)  
북경대(北京大) 외교학과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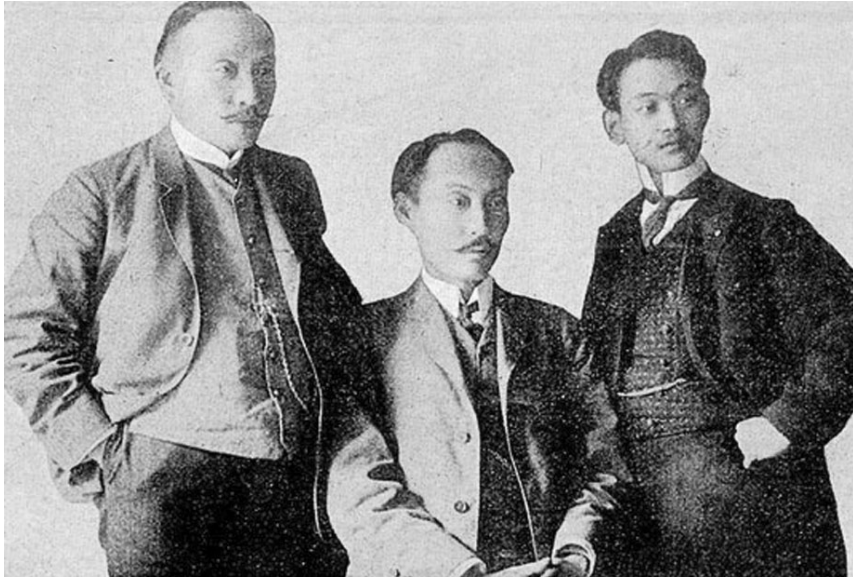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분명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 내의 일부 극우세력은 임시정부의 업적을 무시하며 고의로 폄하시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건국60년<위대한 국민-새로운 꿈>』(박효종 등 공동집필)에서는 임시정부에 관하여 '선언적·상징적 의미에서 보듬어야 할 소중한 자산'일 뿐 실체도 없고 활동도 별로 없었던 존재로 치부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로 위의 책을 수만 권 발행하여 각급 학교 등에 무료로 나누어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런 반민족적 사고를 가진 저술을 우리의 현대사를 "균형된 시각에서 짚어냈다"고 극찬했으며, "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이런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 생각 된다.

임시정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세계 최강대국 중의 하나인 일본제국에 대항하여 싸웠으며, 그 노력과 업적은 후세의 교육자료로서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한 기구가 헌법을 무시하고 반민족적인 뉴라이트에 동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 북경대학에서 외교학 박사과정을 연수중인 본회 맹강현 회원이 임정의 외교활동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내와 본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

## | 이 달의 독립운동 |



▲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된 이준, 이상설, 이위종(좌측부터)

## 들어가는 말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이른바 ‘대한민국 건국 60년’ 홍보 책자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이 있어 지탄을 받은 바 있고, 지금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정’)에 대한 이런 인식을 고집하고 있다.

임정은 1919년 탄생부터 광복 시기까지 국제적인 승인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비록 크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승인 받는 외교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임정 승인과 관련한 이러한 다양한 사례와 자체 분투가 있었음에도 이에 눈감게 되면, “임정은 승인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사실이 단순화됨으로써 역사가 오도되고, 임정의 승인외교활동과 임정의 정부로서의 대표성을 폄하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본문은 국제적 승인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함의, 그리고 임정이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해 지속적 외교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사실상의 승인을 이끌어낸 여러 사례 등을 간단히 살펴본 것이다.



'법률'과 '사실'을 구분하는 이러한 용법은 엄격히 말하면 부정확한 것이다.  
 이 두가지 승인은 모두 법률 효력이 있으며 다만 그 효력 범위만 다를 뿐이다.  
 그런즉 실제로는 모두 법률상의 승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임정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도  
 법률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 점이 간과돼선 안될 것이다.

### 임정 승인과 국제법, 그리고 정치적 배경

임정 초기에 중국의 호법정부(護法政府)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정부와 의회 등이 임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시기에 미, 영, 중, 소라는 당시 강대국 정부의 공식적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정은 승인받지 못했다고 치부하는 시각이 있어 왔다. 그러나, 강대국의 승인논리가 아닌 약소민족의 입장에서 서서 승인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체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또 임정은 대한제국이 망한 후에 10여년이 지나서 국외에 세워졌으므로 대한제국과의 연속성이 없고, 국토와 그 위에 살고 있는 국민에 대해 실효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망명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을사조약과 한일합병이 강제와 사기에 의해 체결된 점에서 그 늑약들이 무효이고, 그래서 대한제국을 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잠재적으로 이어져왔던 만큼 임정은 망명정부로서의 연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힘에 의한 질서를 기정사실화해버리는 국제정치의 관성은 일제의 한국 통치를 묵인하고 있었지만, 한민족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설령 임정이 그 형태상 국제법상의 결격사항이 있다 해도 임정이 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근거는 있다. 임정이 수차례 제시한 그 근거를 간추려보면, 첫째 임정은 1919년 한국에서 혁명에 의하여 한국민의 지지로 세워졌고, 둘째 한국인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소양이 있고, 한반도는 한국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충분한 자원이 있으며, 셋째 임정이 해외의 여러 혁명단체를 영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기가 성숙하여 국내혁명을 발동시킬 때 임정이 유일한 기구가 될 것이며, 넷째 임정에는 훈련이 잘 되어있고 장비가 정돈된 광복군

## | 이 달의 독립운동 |

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법을 살펴보면, 국가승인과 마찬가지로 정부승인에 있어서도 ‘법률상의(de jure) 승인’과 ‘사실상의(de facto) 승인’이 있는데, ‘법률상의 승인’이란 승인의 일반적 요건, 즉 ‘일정한 영토에 대한 실효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새 정부를 대외적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승인이란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잠정적, 과도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의승인과의 차이는 그 법률효력 측면에 있지 않고 그 성격이 잠정적인 것이고 외교관계가 비공식적인 수준에 그칠 따름이다. 따라서 사실상의 승인이란 정치적인 승인행위이다.

그런데, ‘법률’과 ‘사실’을 구분하는 이러한 용법은 엄격히 말하면 부정확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승인은 모두 법률 효력이 있으며 다만 그 효력 범위만 다를 뿐이다. 그런즉 실제로는 모두 법률상의 승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유병화『국제법(상권)』341쪽, 중국정법대학출판사) 따라서 임정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도 법률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 점이 간과돼선 안될 것이다.

### 중국의 입장

2차대전시기 강대국 정부 가운데 중국 국민정부가 임정에 대해 사실상의 승인을 했다. 즉 양국정부는 공식적인 승인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외교관계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 정부들의 임정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즉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독립을 보증한 카이로회담이 열린 후인 1942년, 임정 승인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는 비교적 전향적으로 변했다. 즉 승인을 요구하는 임정에 대해 중국정부가 그 입장을 밝혔는데, “소련이 일본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미국과 영국의 동의를 얻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카이로 회담의 결의가 이미 있었고, 또한 임정이 각 당파를 통일하여 단결했기 때문에 연합국이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은 후에 영국 및 소련과 임정 승인문제를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簽呈(爲現在應否承認韓國臨時政府請核示由)『해외의 독립운동사료18』, 국가보훈처)

다시 말하면, 중국정부는 호법정부 이래로 임정을 사실상 승인하고 있었고 1942년 4월에는 미국 정부에 임정을 승인하자고 공식제기하기까지 하였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자, 공식적인 승인을 표명하지 못했다.

## 미국의 입장

중국 장개석 총통이 임정 승인 의사를 타진한 것에 대해 헐(Hull) 미 국무장관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중국정부에 보낸 회신은, 한국독립운동단체가 분열되어 있고, 국내와의 연계성이 불투명하여, 비록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지만 한국인들의 특정조직을 지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복잡한 정치적 속내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2차대전 말기에 이르러, 미국의 임정 불승인 태도는 소련의 반응을 고려한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루즈벨트대통령과 미국무성, 충칭주재 미대사관 사이에 오간 문서를 보면 미국이 임정을 승인하게 되면 소련을 자극하게 되어, 소련이 소련내의 한국독립운동단체를 승인할 우려가 있다거나 소련이 대일선전포고후에 한반도를 점령하여 적화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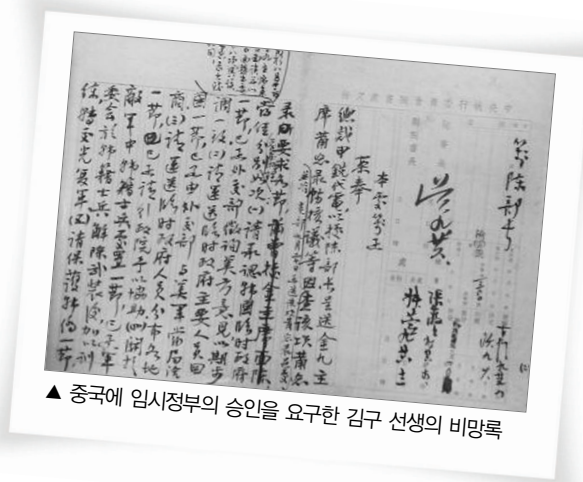
## 영국의 입장

그리고, 영국은 임정을 승인할 경우 영국 식민지인 인도의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었고, 소련은 친중·친미성향인 임정에 대한 승인을 원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연합국들은 일본과 적대하여 교전하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행정부 차원의 임정 승인은 보류하고 있었고, 일본의 직접적 위협을 받지 않고 있던 기타 많은 나라들은 일본과 적대하기를 싫어했으므로 임정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강대국 정부들의 이러한 양면적 태도에 대한 임정의 반론은 1942년 6월 14일 에 발표된 ‘국제연합일과 한국’이라는 문건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1차대전시기에 연합국은 그 정부 자격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체코슬로바키아의 인민위원회를 승인했으며 그 군대를 무장시켰다는 것이다.

임정은 또한, 임정이 다른 망명정부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정부이며, 한국이 동맹국에 대해 공헌할 수 있는 가치와 역량이 과소평가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임정의 승인 요구는 당장 법률적인 승인을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 전략적, 정략적인



▲ 중국에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한 김구 선생의 비망록

## | 이 달의 독립운동 |

승인을 바라는 것이며, ‘승인을 위한 승인’이 아니고 연합국과 합법적 연결을 열기 위한 것이고, 만일 법률적 승인이 목전에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승인만으로도 초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우방이 승인을 주저하는 이유로 지적인 내부 단결의 미숙 문제도 이미 해결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소양선생문집(하권)』 ‘임시정부비망록’, 삼균학회)

### 임정 승인 사례

주요 강대국 정부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임정 불승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임정을 승인한 외국의 정부, 의회, 당파, 국제대회가 있었으니 이는 임정의 지속적인 승인외교의 산물이었다.

처음 임정을 승인한 외국 정부는 손문이 이끌던 중국의 호법정부로서 임정이 파견한 신규식 일행과 손문이 1921년 10월 3일 광저우에서 회담하여 상호승인에 합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신규식은 외교사절의 파견을 요청하여 손문이 동의했고 임정 대표를 광저우에 상주시키도록 했다. 이는 호법정부가 비록 당시 북양군벌과 대결하고 있어서 전체중국을 대표하고 있지 못했지만, 임정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임정 외교활동의 중요한 성과였다.

특히 1921년 11월 하순에 열린 호법정부 국회비상회의가 ‘대한민국 독립승인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이는 물론 임정을 승인하는 내용이 아닌, 한국독립을 승인하는 내용이지만, 한국이라는 국가를 승인한 것이며, 당연히 임정을 승인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호법정부의 임정 승인 사실은, 훗날 중국의 각계 인사들이 임정 승인을 주장할 때 그 근거로 활용되었다. 즉, 중국인들은 “손문이 신규식에게 임정 승인을 약속한 것은 ‘중국이 이미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국민당은 한국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연속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중국국민당 조사통계국 서은증(徐恩曾) 1940년 5월 23일의 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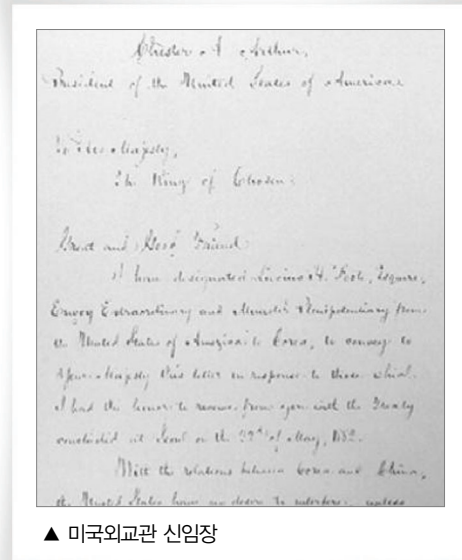
이보다 앞서, 1919년 8월 1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당대회에 조소앙 등 임정요인이 참석하여 임정 승인을 이끌어냈다. 36개국 대표들이 ‘한국임정 승인을 권고하는 안’을 가결시키고 각국 국회에 임정 승인을 요구하였다.

1920년 5월에는 임정이 파견한 특사 한형권이 소련 수상 레닌을 접견하였다. 이 때 한형권은 임정 승인, 독립운동자금 지원 등을 요청하여 레닌의 승락을 받아냈다. 소련이 사실상 임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차관을 제공한 최초의 국가인 셈이다.

1942년 4월, 중국 입법원장 손과(孫科)는 “한국 임정은 한민족의 공의(公議)를 대표하는 유일의 정부이다. 중국이 한국을 정식 승인함으로써 영,미,소도 따라서 승인할 것이요, 승인후



▲ 대한국민회의의 독립선언서



▲ 미국외교관 신임장

의 임정은 역량이 결집되어 대일전에서 중국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갈적봉(葛赤峰)『조선혁명기(朝鮮革命記)』,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그리고 중국의 정당연합체였던 국민참정회에서도 임시정부 승인을 결의한 바 있다. 한중 문화협회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국민참정회 소속이었던 호추원(胡秋原), 도행지(陶行知) 등 21명이 ‘임시정부승인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들은 ‘자유한국 임시정부 및 독립 아비시니아(에티오피아)왕국을 공식 승인하는 문제(제안 제31호)’에서 “한국의 지사들이 중국에 독립정부를 세워 투쟁한 지 20여년이 되었고 근자에 광복군을 조직하여 우리를 도와 항전하고 있으며, 중국이 먼저 승인하면 다른 나라도 승인에 나설 것이며, 그래야 명분과 말이 제대로 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임정승인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미국의 국회인 상하 양원에서도 임정을 승인하였다. 1943년 3월 31일 미국 하원에서 임정 승인 결의안(합동결의안 109호)을 통과시켰으며, 동년 4월 22일 미국 상원에서도 임정승인 결의안(합동결의안 49호)을 통과시켰다.

1945년 4월 11일 개최된 임정 국무위원회는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한불외교대표교환안’을 추진토록 요구하였다. 이 안은 “프랑스임시정부에서 한국 임정과 사실상 관계를 건립하기

이 달의 독립운동

이밖의 사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승인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정을 승인한 정부, 의회, 당파, 국제대회	내용	관련자료
중국 광둥성 국민의회	1919년 4월 5일, 북양정부에 대하여 한국독립승인을 요구.	임정 선전부 문건 (1946. 1)
국제사회당대회	1919년 8월 1일~9일,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되어, 36개국 대표들이 각국 국회에 한국 임정 승인을 권고하는 안을 가결시키고, 각국정부에 대한 한국 임정 승인을 요구.	〈소양선생문집(하권)〉 연표
에스토니아 국회	1919년, 임정승인안 통과.	임정 선전부 문건 (1946. 1)
소련 정부	1920년 5월, 소련 수상 레닌이 임정 특사 한형권을 접견하고 차관 제공을 승락.	임정 선전부 문건 (1946. 1)
중국 호법정부와 국회	1921년 10~11월, 임정특사 신규식과 호법정부 비상대총통 손문이 회담하여 상호 승인을 약속하고, 국회에서는 한국독립승인안 통과.	대공보(大公報) 1944. 9. 23. 민국일보(民國日報) 1921. 12. 5.
중국국민정부 입법원	1942년 4월 8일 입법원 원장 손과(孫科)가 주도하여 국민정부 국방최고위원회에 한국 임정 승인요구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으나 공표하지 않음	임정 선전부 문건 (1946. 1)
아바나(쿠바) 승전연합대회	1942년 6월 15일, 한국 임정 승인.	〈개항 100년 연표자료집〉 (신동아 1971년 1월호 별책부록)
미국 상하 양원	임정승인 결의안(1943년 3월 31일 미국 하원 합동결의안 109호 및 동년 4월 22일 미국 상원 합동결의안 49호) 통과.	〈해외의 독립운동사료 (미주편2)〉 국가보훈처(1994.12)
중국 국민참정회	1943년 도행지(陶行知), 호추원(胡燏棻) 등 21인이 임정승인안을 제안하여 결의하고, 국민정부에 대해 임정승인을 촉구. 1944년에 다시 촉구.	〈해외의 독립운동사료 (대만편1)〉, 국가보훈처(1996.8)
프랑스 망명정부	1944년 6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정승인 통보	〈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 임시 의정원 제39차회의(1945. 8.17) 속기록
폴란드, 핀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	1944년,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정 승인 통보	〈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 문서 등

외세는 항상 우리 민족에게 주된 압력으로 작용했다.  
 그 외세는 과거에는 일제의 강제합병행위를 묵인한 외세였고,  
 나중에는 신탁통치안을 예고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미리 재단한 외세였다.  
 그리고, 약소민족의 망명정부인 임정이 그 국제적 승인을 위해 분투한 내용은  
 곧잘 눈에 보이는 현실로 결과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강대국 사이의 역학과 이해관계 속에서 묻히기도 하였다.

로 하고, 이 뜻을 프랑스 주중대사를 통해 임정 외무부장에게 정식으로 통첩하였으므로 한불 양국의 사실상 관계가 이미 성립된 이상, 1945년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외교대표를 양국간에 교환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서영해를 임정 주불대표로 선임 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 임시의정원 제39차회의(1945. 8.17) 속기록)

## 맺는 말

외세는 항상 우리 민족에게 주된 압력으로 작용했다. 그 외세는 과거에는 일제의 강제합병 행위를 묵인한 외세였고, 나중에는 신탁통치안을 예고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미리 재단한 외 세였다. 그리고, 약소민족의 망명정부인 임정이 그 국제적 승인을 위해 분투한 내용은 곧잘 눈에 보이는 현실로 결과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강대국 사이의 역학과 이해관계 속에서 묻히 기도 하였다.

2차대전 시기 주요 강대국 정부가 임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국제역학구도하에서 펼쳐진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었다. 임정 자체의 문제 보다 이런 정치적 형세가 더 강한 요소로 작용 했던 것이다. 물론, 임정이 보다 큰 역량을 결집시키고, 보다 일사불란했다더라면 더 많은 나라

| 이 달의 독립운동 |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적승인문제를 다룬 신문 국민보

들의 공식적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만, 임정의 승인외교는 처음부터 냉엄한 국제정치적 장벽에 부딪치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망명정부나 교전단체가 승인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느냐는 것에는 일정한 국제법적 표준이 있긴 하지만, 승인행위 자체는 법률상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 행위인 즉, 임정이 강대국으로부터 공식적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로 인해서 임정이 정부로서의 자격이 부족했다고 추론될 수도 없다.

더욱이, 임정은 사실상의 승인을 여러 곳에서 이끌어 냈으며, 이러한 승인은 국제법을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다만 국제역학을 주도하는 강대국의 중앙정부가 행하는 승인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크게 드러나지 못했을 따름이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약소민족의 주체적 관점에서 보면 임정도 망명정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국주의가 강요한 질서를 거부하여 전체 한민족이 3.1운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물이 임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임정이 강대국 중앙정부의 공식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임정이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승인행위에는 정치적 계산이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법적 시각에서 보아도 사실상의 승인은 승인 받는 효력이 있다.

넷째, 여러 나라의 정부 및 의회, 국제대회 등 세계각지의 임정 승인행위가 있었으며 이들의 사실상 승인 행위를 간과해선 안된다. 이는 임정이 혈성(血誠)으로 분투한 결과이다. 이 성과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 ‘민주공화제’ 채택은 혁명적

이명박 정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폄하의 대상이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일’, ‘건국절’로 기념하면서, 27년 동안 일제와 피나는 전쟁을 치루고,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반헌법적, 반역사적 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5년 임기의 정권이 임시정부를 폄하한다고 하여 임정의 존재와 역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신봉하는 집권세력이나 그 추종자들에게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는 거추장스러울지 모른다. 그것보다 철도를 놓고 신작로를 닦아준 침략세력과 여기 빌붙어 내선일체·동조동근을 부르짖었던 자들에게서 ‘실용주의’와 ‘선진화’의 모델을 찾을지 모른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몰역사적인 가치관이다.

한민족은 나라를 잃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권회복운동을 벌였다. 3·1운동은 바로 그 절정이었다. 2천만 민족의 10분의 1이 만세운동에

# 임시정부가 꿈꾼 정치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

| 90주년 기획 특집 |



▲ 임시의정원 인사들

나설만큼 거족적이었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산물이다. 3·1운동 뒤에 국내 외에서 5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한결같이 정체는 군주제의 부활이 아니고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혁명적인 정체의 전환이었다.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국호와 국체문제를 논의할 때에 국호는 대한민국·조선공화국·고려공화국·대한제국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국호이니 다시 찾아 독립했다는 의미를 살려야 하고, 제국이 아닌 민국으로 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주권재민'의 세계사적 조류에 맞춘 것이었다. 당시 중국혁명이 혁신적인 의미로 민국을 칭호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여운형 등 몇 사람이 대한은 망한 국호, 일본에 병탄된 국호이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지만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국체문제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왕정복고나 사회주의 체제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다수의 뜻에 따라 민주공화정으로 수용되었다.

대한민국임시헌장(헌법)은 조소앙이 기초하여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에서 심의를 거쳐 채택된 전문과 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일제 병탄 9년 만에 국체와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하고, 구대한제국의 복구가 아니라 혁





명적 새나라의 건국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일제와 싸우는 전시 체제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를 통치함”(제2조)이라고 규정하여 권력분립체제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실제로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이 국정의 최고정책결정 기관이 되었다. 헌법은 남녀귀천·빈부계급이 없는 일체 평등을 명기하고(제3조), 신교·언론·거주이전·신체·소유의 자유(제4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제5조), 교육·납세·병역의무(제6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과 국제연맹가입(제7조), 구황실 우대(제8조), 생명형·신체형·공창제 폐지(제9조) 등을 설치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제10조에서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하여, 광복 뒤에는 지체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비록 10개 조항에 불과한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지만 근대 민주공화제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다. 1919년 봄 이역에 모인 망명 지사들은 이렇게 민주적인 신념으로 우리나라의 국체의 근간을 공화제로 만들었다.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은 구황실의 예우문제와 같은 봉건적인 잔재가 없지는 않았으나, 헌법을 민주공화제로 만들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절충식을 채택하였다. 임시정부는 1919년의 제1차 개헌, 1925년의 제2차개헌, 1929년 제3차개헌, 1940년의 제4차개헌, 1944년의 제5차 개헌 등 전후 다섯차례에 걸친 개헌과정에서 민주공화주의의 기본을 유지하였다. 임시정부가 채택한 공화제 자유주의 이념은 8·15해방이 될 때까지 유지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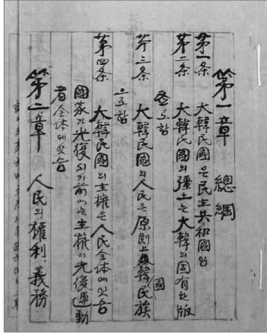
상하이 임시정부는 의정된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을 개선거 하면서 새로운 충원을 통해 민의를 받아들이고 법통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임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승만대통령이 월슨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당분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에 둘 것을 청원한 사실과, 이동휘 국무총리가 임시정부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소련 레닌에게 독립운동 원조를 교섭하고 측근을 통해 받아온 자금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임시정부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1927년 3차 개헌에서 집단지도 체제인 국무위원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제의 1인 체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바꾼 것은 이승만과 이동휘가 축출되고 지도부의 공백 상태에서 다수의 참여를 통해 화합의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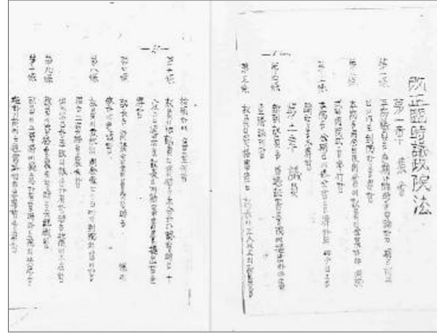
| 90주년 기획 특집 |



▲ 의회정치에 기틀을 다진 만오 흥진 선생



▲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 임시의정원에서 개정된 임시의정원법

뇌의 산물이었다.

임시정부 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약헌(헌법)을 공포하면서<정강>도 함께 공포하였다.

정강(政綱)

1. 민족평등·국가평등 및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의함.
5. 절대 독립을 서도(誓圖)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하는 자는 적으로 함.

임시정부는 건국강령 제1장 총강에서 7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민족 공동체로서 최고 조직인 한국 ②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토지제도의 국유화규정 ④주권상실 당시의 순국선열들의 유지 ⑤혁명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로서의 임시정부 ⑥1931년에 선언한 삼균제도의 발양 확대 ⑦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과 건국을 통하여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정치의 동시 실현을 다짐하였다.





임시정부는 일부 몰역사적인 부류의 폄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적·법적 모태이며,  
임시정부가 꿈꾸고 설계했던 정책 중에는  
지금도 우리가 채택해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 삼균주의 건국기본이념 삼아

임시정부는 일제의 패색이 점차 짙어지는 1941년 11월 조국광복과 건국에 대비하여 제4차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이 때에 삼균주의 사상을 개정헌법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다.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독립운동 진영의 이론가인 조소앙은 독립운동 내부의 좌우익사상을 지양, 종합하여 독립운동의 기본방략과 광복된 조국건설의 강령으로 삼기 위하여 삼균주의를 창안하였다.

조소앙은 손문의 삼민주의, 강유위의 대동사상, 아나키즘, 사회주의 등 여러 사상을 배경이론으로 하여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간에 균등생활을 실시하려는 조국건설의 민족주의적 정치이념으로 삼균주의를 제시하였다.

1918년 정부터 싹트기 시작한 조소앙의 삼균주의 사상은 '완전균등'을 본질로 한다. 개인간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는 대전제에서 보통선거제·국유제·국비의무교육제를 실행하여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이루자는 뜻이었다.

민족과 민족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을 통하여 이룩되는데, 이를 모든 민족에 적용하여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이 피압박·피통치의 지위에 낙오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은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부정하고, 침략전쟁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서로 간섭, 침탈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로써 완전평등의 국제생활이 이루어지며, 더 발전하면 사해일가(四海一家)·세계일원(世界一元)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고 내다보았다.

임시정부는 삼균주의 이념을 4차 개헌 과정에서 폭넓게 받아들이고 건국강령

| 90주년 기획 특집 |



▲ 삼균주의를 제시한 조소앙 선생

에서는 “복국(復國)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자주·균치(均治)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피압박 식민지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임시정부 처럼 민족혁명과 세계평화 사상을 이론화·체계화하고 헌법과 건국강령으로 만든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국비의무교육제’를 통해 모든 국민의 정치·경제적인 균등한 생활을 도모하자는 방안은 대단히 선구적인 내용이고 정책이

었다. 해방 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주체가 되고 삼균주의 사상이 강령이 되었다면 한국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공산주의 신봉세력이 설 땅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새나라 건설의 당면정책**

임시정부는 1945년 9월 3일 해방 뒤 김구 주석 명의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이란 성명을 통해 14가지 당면정책을 발표, 임시정부와 “동포 제위의 당면노선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였다.(현대문으로 정리)

1. 임시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입국할 것.
2. 민족해방과 독립운동을 위해 혈전한 중·미·소·영 등 우방과 제휴하고 연합국헌장에 의해 세계일가의 안전 및 평화실현에 협조.
3. 연합국 중 주요 국가인 중·미·소·영·불 5강과 먼저 우호협정 체결.
4. 맹군(동맹군) 주재기간 내에 일체 필요한 사안을 적극 협력.
5. 평화회의 및 각종 국제집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발언권 행사.
6. 국외 임무의 약속과 국내 임무의 전개가 서로 접속됨에 필요한 과도조치를 집행하되 전국적 보통선거에 의한 정식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 계층·혁명당파·종교집단·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 영수회





담을 소집.

7.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 본 정부의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하고, 본정부의 일체 직능 및 소유물건은 과도정권에 인계.
8.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민주정부·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신헌장에 의하여 조직할 것.
9. 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의 질서와 대외 일체 관계를 본정부가 부채 유지할 것.
10. 교포의 안전 및 귀국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구제를 신속히 처리할 것.
11. 적의 일체 법령의 무효와 신법령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적의 통치하에 발생된 일체 범죄(罰犯)을 사면할 것.
12. 적산을 몰수하고 적교(敵橋)를 처리하되 맹군과 협상하여 진행할 것.
13. 적군에게 피박 출전한 한적군인을 국군으로 편입하되 맹군과 협상하여 진행할 것.
14.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노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

임시정부는 새로 수립되는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민주정부·균등사회를 3대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외국 군정이나 분단정부, 자본독재나 공산독재를 배격하였다. 친일파·매국노를 공개적으로 엄중 처분할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미국은 체미 중이던 이승만은 특별기를 통해 급히 귀국시키고,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은 11월 23일 그것도 개인자격으로 귀국케 하였다. 이로써 임시정부가 일제와 싸우면서 구상했던 새나라 건설의 꿈과 이상은 좌절되고 말았다.

임시정부는 일부 몰역사적인 부류의 폄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적·법적 모태이며, 임시정부가 꿈꾸고 설계했던 정책 중에는 지금도 우리가 채택해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침략으로 9년 동안 단절되었던 국맥을 잇고 정통성을 가진 망명정부로서 종래의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하여 민족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 단체, 사회주의·아나키즘세력까지를 포괄하여 민족 전체를 대표하였다. 연통제 실시, 광복군 창군, 대일·대독선전포고 등 임시정부는 조국광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 제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때까지 27년 동안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유일하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

#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그 기본정신



김영수  
성균관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전 한국헌법학회회장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은 3·1 독립운동의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 당시 독립을 위한 한민족의 의지는 자연히 조직적인 국가차원의 독립투쟁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의 여망에 따라 한인독립투사들은 독립운동을 위한 정부수준급의 최고통치기관인 자주정부수립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러던 중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은 항일투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개 처에서 비밀지하 단체를 동시에 수립하였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회(노령), 조선민국임시정부(안), 상해임시정부, 신한민국정부(안), 한성정부 등이다.

이 중 사실상의 정부조직에 착수한 것은 대한국민의회, 상해임시정부 및 한성 정부였다. 이 3개의 임시정부는 4개월여 동안 진통을 겪고 난 후 1919년 9월에 상해의 임시정부가 개헌의 형식으로 국민의회를 흡수하고 한성정부와 통합함으로써, 단일의 독립운동추진기구로서 그 통일성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하여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5년 11월 23일 광복된 조국에 환국할 때까지 27년 동안 한민족의 정신적 대표기관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해왔고 그것은 동시에 전 민족의 혁명총지도기관적 지위를 누려왔다. 임시정부는 중국 땅 프랑스조계에서 조국에 환국할때까지 전후 5차례 걸쳐 임시헌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1941년 건국강령을 포함하면 도합 7개의 임시헌법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형태도 정치적 상황의 변천에 따라 집정관총재제, 대통령제, 국무령제, 국무위원제, 주석제, 주석·부주석제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상적 배경은  
 3·1민족운동에서 그 정신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민중시위에서 독립을 구가한 2천만 민중의 호소는  
 단순한 집단적 반항의 성격을 넘어 새로운 국가질서를 탄생키위한  
 헌법제정권력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전국적 행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국가를 세우자' 라는 의안의 민족적 의지라 볼 수 있다.

### 헌법의 정신적 기원 3·1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상적 배경은 3·1민족운동에서 그 정신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민중시위에서 독립을 구가한 2천만 민중의 호소는 단순한 집단적 반항의 성격을 넘어 새로운 국가질서를 탄생키위한 헌법제정권력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전국적 행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국가를 세우자' 라는 의안의 민족적 의지라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2천만 민중의 이름으로 고한 자주와 독립의 선언은 민주에 기반한 근대국가질서의 승인이고, 동시에 그 독립선언서는 국내에 있는 민중의 독립을 위한 행동틀이며 투쟁틀로써,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문서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정시에 영향을 끼친 법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후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은 국권회복과 항일투쟁을 위한 정부급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니, 대한민국의회, 상해임시정부 및 한성정부 등이 그것이다. 이 3개의 임시정부는 개헌의 형식으로 노령의 국민의회가 상해임시정부에 흡수되고, 상해임시정부가 한성정부에 일체화됨으로써 단일의 독립운동추진기구로서 그의 지위가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한민족의 민족정신의 결정이 3·1독립정신이었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은 3·1독립정신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3·1민족운동의 결과로 탄생된 임정의 질서는 왕정복고가 아닌 자유와 민주라는 근대적 국가 기본질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 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환국할때까지 전후 6차의 개헌을 통하여 헌정질서를 유지해왔고, 정치체제도 집정관총재제, 대통령제, 국무령제, 국무위원제, 주석제, 주석·부주석제로 정부형태를 달리하면서 27년동안 한민족을 대표하는 한국독립운동의 유일한 최고기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어 왔다. 따라서 3·1민족운동 이후의 민족적 주체성은 임정을 정점으로 한 독립운동에서 보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 90주년 기획 특집 |

임정은 1931년 4월 조소양선생이 기초·작성한 <대외선언>을 건국원칙으로 삼아 발표하였는바, 동 선언문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보통선거제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등하게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함으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면비교육제도를 채용함으로써 학권(學權)을 균등하게 한다.

### 임정의 건국이념 삼균주의(三均主義)

삼균주의 사상은 임정의 대표적 이론가이며 독립운동가인 조소양선생이 그가 평소 구상 하던 삼균론(三均論)을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하면서 처음으로 피력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종합하면서 임정의 각 단계 헌법과 그 산하 독립단체의 당의나 당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바 있고, 이 원칙이 구체화되어 건국강령(1941. 11. 28)에서는 임정의 건국이념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이 원칙은 임정의 마지막 헌법인 제5차 개헌임시헌장에서 이념적 기초로서 구현되었다.

삼균주의 원칙은 1928년 조소양 선생이 기초한 (구)한독당의 주의정강·정책을 해설한 <韓國獨立黨之近像>에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간의 삼균생활을 실현하려는 주의이며, 이는 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을 뜻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임정은 1931년 4월 조소양선생이 기초·작성한 <대외선언>을 건국원칙으로 삼아 발표하였는바, 동 선언문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보통선거제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등하게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함으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면비교육제도를 채용함으로써 학권(學權)을 균등하게 한다.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간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또한 정치·경제·교육상의 권리를 균등하게 하도록 하여 고저가 없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삼균주의 원칙을 민족의 좌표로삼아 독립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 임시정부헌법에 나타난 정통의식

사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의식이 3·1독립운동의 민족적 자주성에서 유래하였다는 근거는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전문 및 조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국호를 내외에 선포하였는데, 이는 대한제국과 현 우리나라 국호인 대한민국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 맥락을 연결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에서 나타난 정통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19년 9월 11일 개정된 통합정부의 임시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본 헌법의 전문은 한민족의 독립을 재확인하고, 3·1독립선언문을 그대로 그 서두에 인용하여 임시정부와 그 헌법이 3·1민족정신에 입각하여 수립·계승되었음을 재천명한 것이라 할수 있다.

둘째로, 1944년 4월 22일에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전문을 검토해보면,

그 전문(前文)에서는 3·1대혁명시에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추향에 순응하여 자유·평등사상을 기본삼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임시헌장을 제정한다는 기본정신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있다.

셋째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이 제정되어 환국할때까지 27년동안 5차의 개헌을 하였는데, 각 개정헌법의 제1조에 나타난 조문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제헌헌법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과 현행 헌법 제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과 동일 내용의 조항이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의 근본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 성격은 대한민국임시헌법이나 제헌헌법이 동일하며, 또한 현행헌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다.

넷째로, 1948년 대한민국제헌헌법을 기초할 때 임정헌법의 기본이념인 삼균주의사상은 임정헌법에서 제헌헌법 및 현행 헌법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특히 제헌헌법의 기초과정에서 제헌헌법위원의 대다수가 임정의 헌법과 삼균주의사상을 제헌헌법의 내용으로 삽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헌법기초자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헌법전문에 ‘3·1독립정신’만을 계승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정과 그 헌법의 계승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헌법인식에 대한 태도가 제2공화국·제3공화국·제4공화국·제5공화국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제6공화국헌법에 와서야 비로소 그 헌법전문에서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繼承하고’라고 하여, 현행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 | 90주년 기획 특집 |

## 헌법의 특징으로는

- ① 3·1독립정신
- ② 삼균주의
- ③ 국민주권,
- ④ 자유권보장
- ⑤ 3권분립제도
- ⑥ 의회제도
- ⑦ 법치주의
- ⑧ 성문헌법 등을 들수 있다.

##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원 임시정부 헌법

임시정부헌법은 통상적인 헌법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법(통합헌법)과 1944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제5차개헌)에서는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면모도 발견할 수 있다. 그 헌법의 특징으로는 ① 3·1독립정신 ② 삼균주의 ③ 국민주권 ④ 자유권보장 ⑤ 3권분립제도 ⑥ 의회제도 ⑦ 법치주의 ⑧ 성문헌법 등을 들수 있다. 특히 임시정부의 각 단계의 헌법에서 전문이 있는 것에는 현행헌법의 전문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3·1독립정신'을 삽입하여 우리민족의 건국정신임을 천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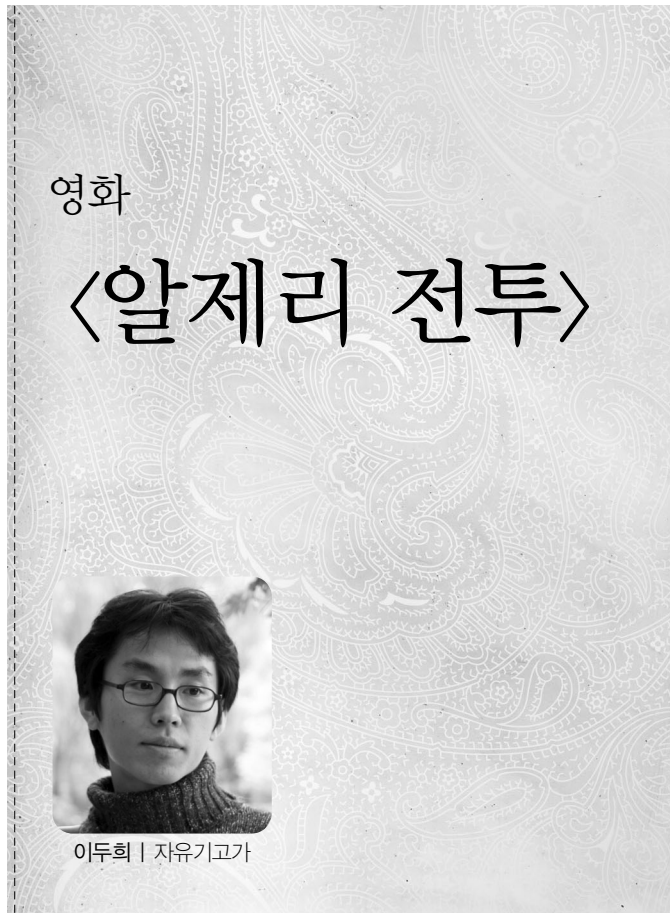
3·1정신의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적기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제6공화국 헌법에 와서는 그 헌법전문에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계승하고 있음을 헌법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레지스탕스 영화 읽기



알제리의 식민지와 독립



프랑스가 알제리를 점령하고 식민지 통치를 시작한 때는 19세기 초엽부터였다. 그리고 거의 백년의 시간이 지나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알제리 역시 그들의 식민지 피지배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독일의 파시즘에 맞서서 북아프리카의 피식민지 국가들이 프랑스 망명정부와 함께 싸웠던 이유는 단지 또다른 먼 나라 알제리의 독립운동을 가까운 이야기의 주제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까지 유럽의 식민지 대륙서 벌어졌던 극단적인 테러리즘 운동과 독립국가의 탄생, 그리고 아직까지 이어지는 상처들의 흔적들이란 서구의 변방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에게도 현대사에 대한 낯설고도 가까운 동질감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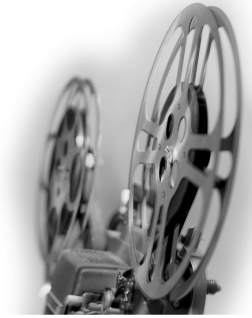
◀ 거리의 부랑아에서 조국을 위한 투사로 각성하는 알리

**길로 폰테코르보 감독**의 1965년작 영화 <알제리 전투>는 그들의 독립운동이 무장투쟁으로 본격화 되던 50년대 후반의 알제리를 그리고 있다. 당시 알제리민족해방전선(FLN)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테러리즘 운동과 그에 대한 프랑스의 군사 진압 작전들은 영화의 제목처럼 전투 혹은 전쟁의 양상에 다름 없었고 그 안에서 마땅히 독립투사라고 부를 수 있을 인물들의 삶과 죽음의 모습들이 담겨있었다. 분명히 무차별한 테러와 폭력적인 진압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이 영화가 호소하는 지점은 지식인의 관조라 할 수는 없을 파토스적 비극감과 충격들에 있다. 영화의 이야기는 알제리 빈민가의 한 범죄자 알리가 우연히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의 투쟁처럼 짧지만 뜨겁게 타오른 그의 인생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의 극작을 일단락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는 그 드라마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년 후 61년의 알제리 봉기와 함께 알제리의 독립을 보여주는 뉴스릴 화면으로 좀 더 이어진다. 사실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사실감있는 화면들은 극적인 재현과 역사적 재연 사이에서 영화를 보는 이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하기까지 한다. 또한 중간중간 영화는 인물들을 통해 그 자신이 이탈리아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었던 감독의 발언이라고 생각되는 투쟁과 역사에 대한 솔직한 단상들을 역시 잘 전달해준다.

하지만 알제리의 독립에 대한 좀 더 균형 잡힌 시선은 이 영화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찾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탈리아 출신의 감독은, 그의 경력과 관심사가 어찌되었건 간에 이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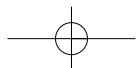


사실 영화 '이후'의 역사는 영화 바깥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고 있다. 알제리 전쟁 이후 90만명이 넘는 유럽계 알제리주민들의 망명은 적지 않은 사회 혼란과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알제리의 전장을 벗어난 수많은 전투들로서 아직도 공식적인 발언이 금기시되는 준테러사건들이 있었다.



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알제리에 대한 식민지 독립운동의 전형을 잘 보여주지만, 그 역사적 조건들이라 할 수 있는 세부사항까지 보여주기에는 짧을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1954년부터 1962년까지 알제리 전쟁기간 중에 재집권한 드골정부의 전향성과 사르트르와 같은 참여작가들의 독립지지 발언들은 영화 안에서 과잉진압과 잔혹한 고문 수사만으로 그려진 프랑스의 모습보다는 좀 더 복잡할 것이다. 그리고 알제리에게도 역시 식민지 피지배 역사는 단지 타인과의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한 세기에 걸쳐 축적된 공동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감수해야 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60년대 후반으로 이어지며 독일적군 파와 같은 극단적인 좌파 무장항쟁 조직들이 공공연한 선전포고를 통해 자신들의 전쟁을 선언하던 유럽 안에서 FLN이라는 사회주의혁명조직의 이름을 가진 알제리 독립투사들이 어떤 정치적 지형 속에 위치하는가 역시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영화 <알제리 전투>는 역사에서 잘라낸 완전치 못한 단면 일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리고 차라리 보여진 것만으로 보여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논쟁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영화의 보다 적절한 역할이었다. 사실 이 영화 '이후'의 역사는 영화 바깥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고 있다. 알제리 전쟁 이후 90만명이 넘는 유럽계 알제리주민들의 망명은 적지 않은 사회 혼란과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알제리의 전장을 벗어난 수많은 전투들로서 아직도 공식적인 발언이 금기시되는 준테러사건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1961년 '파리의 학살'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반인종적 정책에 항의한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에 대해서는 아직 진상조사 전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유럽문화의 중심 도시인 파리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센 강 속에 처박힌 그들의 시신이 과연 몇 십구인지조차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알제리 전쟁'이라는 명명조차 거의 40년이 지나서야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누가 더 잔혹했음을 보여줌으로써 혹은 어느 편이 더 많이 당했다는 사실



을 드러냄으로써 쉽게 정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영화도 그리고 어떤 영화도 그런 심판을 할 수는 없다. 한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타자를 마주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적이라고 가정할 때 어디서나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애초에 타자란 이름은 자신의 역사, 자신의 가치관 속으로 포섭되지 않고 될 수도 없는 이들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직 모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가 없는 까닭에, 항상 역사에는 피식민지라는 이름의 타자와 식민지라는 이름의 타자가 동시에 존재해왔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지배 관계이거나 아직도 전쟁 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타자의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독립운동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오래 전 한 철학가가 말한 도덕법칙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싶다. 자신의 도덕적 격률을 타인에 대해서도 허락해야 한다는 원칙.

〈알제리 전투〉의 마지막 뉴스릴로 기록된 부분에서 경찰과 대치중인 시위대에게 누군가 묻는 장면이 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민중의 무리 속에서 어떤 한 목소리가 외침으로써 대답한다. 자유, 그리고 긍지라고. 스스로 지키고 자랑스러워야 할 가치로서 서로에게 허락해야 할 것이 자유가 아니라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요구가 영화 〈알제리 전투〉에서 찾은 역사에 대한 진실의 한 자락일 것이다.

참고로 알제리 전쟁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프랑스 영화는 많지 않다. 마치 2차대전 중 독일점령기 시절의 프랑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 역사에 대한 드문 언급조차 항상 간접적이다. 다만 알랭 레네 감독의 〈뮤리엘〉(1963)에서 최근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히든〉(2005)이르기까지 그 패배와 상처의 기억은 프랑스로 하여금 복잡한 반성과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



▲ 알제리전투 포스터



▣ 특별기고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본회 이사

# 故 곽태영선생의 삶과 투쟁

우리 시대 다시는 만나기 어려운 의인이셨던 곽태영 선생이 작년 12월 1일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갑작스레 작고했다

빈소를 찾은 리영희선생은 “곽동지야말로 불꽃처럼 살다간 지사의 표본이었다”고 애도하였다

선생은 친일파 청산과 민족정기를 수호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을 섰다. 선생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 자리서 응징하는 행동인, 사회정의를 위하여 몸도 재물도 아끼지 않았던 정말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 독립투사였던 숙부로부터 민족의식 전수

선생은 손기정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달았던 그해, 1936년 2월 20일 일제의 수탈이 극심했던 곡창지대인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독립운동가였던 셋째 숙부 곽경렬선생에게서 일찍부터 정신적인 감화를 받고 자랐다.

선생의 숙부께서는 15세 때인 1915년 광복단에 입단, 친일파 처단 활동에 나섰다.



▲ 박정희기념관반대 국민연대 정기총회에서 곽태영 선생

당시 군산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헌병대 분견소를 습격하여 장총과 권총 군도를 빼앗아 친일 파를 사살하고 만주로 망명했다.

다시 귀국하여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돼 3년 간 옥고를 치른 분이다.

선생의 조부인 곽유중씨는 아들이 숨어 있는 곳을 대라며 미친 듯 날뛰던 일경의 구둑발에 채여 피를 토하다가 68세에 작고하였다.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유년기를 보낸 선생은 유난히 귀여워해준 곽경렬 숙부에게서 한문을 배우며 민족의식을 전수받았다.

1949년 김구선생이 암살당하자 며칠 동안 통곡하던 부친과 숙부를 보면서 암살범 안두희를 꼭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이 때 선생의 나이 13세. 백범일지를 이미 읽었던 선생에게 준 충격은 선생의 인생행로를 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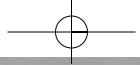
#### 4월혁명의 선두에 서다

김제 만경중학교 재학중 서울로 전학, 균명고등학교 3학년 때 효창고원에 있는 백범선생 묘소에 찾아가 10년 내에 암살범을 붙잡아 그 배후세력을 밝히겠다고 다짐하였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학생들을 이끌고 경무대 앞까지 진출했는데 하마터면 쏟아지던 총탄에 맞아 돌아가실 뻔 하기도 했다.

지금 서울시의회 회관인 국회의사당에서 학생 대표로 열변을 토하는 등 4.19혁명에 적극 참여하였다.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국학대 대표를 맡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구호를 외치며 통일 운동에도 앞장 섰다.



4월혁명 기념식 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화환이 4.19묘소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선생은 분개하여  
 “4.19를 짓밟은 왜군장교의 딸이 여기가 어디라고.”하시며  
 화환을 박살 내 보는 이들을 통쾌하게 했다.

1988년 4월혁명 동지들을 규합하여 사월혁명회를 조직하고 공동의장과 조국통일위원장을 맡아 4월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4월혁명 기념식 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화환이 4.19묘소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선생은 분개하여 “4.19를 짓밟은 왜군장교의 딸이 여기가 어디라고..”하시며 화환을 박살 내 보는 이들을 통쾌하게 했다.

### 백범 암살범 안두희를 응징하다

백범선생 묘소에서 원수를 갚아드리겠다고 약속한지 10년째 되던 1965년 12월 선생은 안두희 사진을 가슴에 품고 행상 차림을 하고 강원도 양구로 향했다.

안두희는 6.25전쟁이 일어나자 범행 1년 만에 특별사면돼 군 장교로 복귀했고 대령으로 예편하여 강원도 양구에서 전방 군부대에 식품 납품을 독점하여 갑부가 돼 있었다.

선생은 안두희가 운영하던 군납공장을 조망할 수 있는 민가에 하숙을 정했다. 그리고 행상처럼 보이기 위해 군납공장에도 들러 양말 장갑 등을 팔며 안두희가 사는 집 구조를 살폈다.

엄청 큰 세퍼드가 집을 지키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다. 선생은 그 개와 사귀기 위해 매일 고기 덩어리를 던져줘 이제 꼬리를 흔들며 반길 정도로 만들었다.

1965년 12월 22일 아침 하숙집에서 안두희 숙소를 내려다 보니 그가 타고 온 짚차가 보였다. 순간 가슴이 쿵쥔거리고 발이 떼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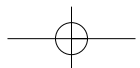
선생이 백범선생에게 용기를 주실 것을 기도하자 놀랍게도 발이 떼어지고 마음에 평정이 왔다.

동네 청년처럼 보이기 위해 흰 와이셔츠 차림을 하고 주머니에 비수와 자백 받을 필기도구를 넣고 나섰다.

사나운 개가 짖지 않고 꼬리를 흔들었다.

앞마당을 들어서니 우물가에 세수하려 나왔던 안두희가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순간 안두희의 멱살을 낚아채며 재크나이프를 목에다 겨눴다.



## ▣ 특별기고

이때가 선생의 나이 29세로

백범선생 묘소에서 약속한지 10년째 되는 마지막 해 였다.

전국에서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애국청년을 석방하라는 서명에 참여했고

선생은 사건 8개월만인 1966년 7월 3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구 선생님을 살해한 민족의 원수야! 자백을 하면 살려주겠다. 김병삼이가 배후지?” 라고 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모도 배후지?” 라고 묻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채 하던 안두희가 비수를 잡은 선생의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했다. 선생은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던중 군대에서 유도를 배운 안두희에게 업어치기를 당했다. 칼은 저만치 날라갔고 언 땅에 업어치기를 당한 선생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대로 몇분만 있으면 큰 일 났을텐데 조금했던 안두희가 돌을 집어 내려치려고 일어나는 순간 그의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걷어차자 나가 떨어졌다.

선생은 그가 집으려던 돌을 집어 면상을 내려치고 칼로 찔렸다. 서로 죽느냐 사느냐의 그야말로 사투였다.

그때 직원들이 몰려나와 선생을 때리려 하자

“너희 사장은 김구선생을 살해한 민족의 원수다. 때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

이때가 선생의 나이 29세로 백범선생 묘소에서 약속한지 10년째 되는 마지막 해 였다. 전국에서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애국청년을 석방하라는 서명에 참여했고 선생은 사건 8개월만인 1966년 7

월 3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 4월혁명 짓밟은 박정희 망령 부활을 경계

선생은 그 후 백범기념사업회 이사로서 백범정신을 선양하는 일에 정성을 다 했다. 없는 살림에 백범일지를 수만 권을 인쇄해 전국에 배포하고 백범독서회를 만들어 민족혼을 고취하는 일에 앞장 섰다.

선생은 무엇보다도 4월혁명을 짓밟은 독재자 박정희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2000년 11월 서울 영등포 문래공원에 서 있던 박정희 흉상을 김용삼선생과 서강대학생들과 함께 철거해 벌금형을 받았다.

“흉악범 광태영을 처단하라”고 경상도 선산에서 버스를 대절해 재판정에 몰려온 수십 명의 수구인 사들에게 박정희 죄상을 추상같이 설파하여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기도 했다.

2001년 11월에는 탑골공원 정문에 붙어 있던 삼일문이란 현판을 “왜군 장교 다까끼 마사오가 쓴

“

선생은 민족정기가 훼손 당하는 일이다 싶으면  
언제나 앞장 서 현장을 몸으로 지켰던  
불꽃처럼 살다간  
이 시대 마지막 독립투사였다.

”



▲ 생전의 객태영선생

현판을 독립운동 발상지인 탑골공원에 걸어뒀서는 안된다”며 아들과 함께 떼어내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그리고 박정희가 쓴 안중근 기념관 현판과 윤봉길의사 사당의 현판을 떼어내라고 일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에 앞장

김대중 정권이 정부 예산으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박정희기념관을 세우려하자 선생은 크게 노하였다.

선생은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대표를 맡아 5년간 가열찬 투쟁을 벌여 결국 정부에서 기념관 건립을 포기하도록 했다.

선생은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며 장문의 혈서를 써서 청와대에 보내고 한겨레신문 1면에 “우리 독립

군을 학살한 왜군 장교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앞장 서는 김대중은 민족반역자다”라는 제목의 통단광고를 실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 누가 현직 대통령을 민족반역자라고 매도하는 광고를 실을 수 있을까, 선생만이 할 수 있는 의혈남아의 거사였다.

최근에는 스위스에 있다는 박정희 비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육영수 피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일본에 살고 있는 문세광의 유족을 만나고 진실화해위에 사건처리를 진정하는 등 아무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도맡아 했다.

선생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통일된 나라를 염원했던 김구선생님의 뜻을 이어 힘들고 의로운 한생을 살다 갔다.

선생은 민족정기가 훼손 당하는 일이다 싶으면 언제나 앞장 서 현장을 몸으로 지켰던 불꽃처럼 살다간 이 시대 마지막 독립투사였다. ☺

## 이 시대의 독립정신이 거기 있었네

-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원장 서흥관 박사

“금연운동이라는 것도 의사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워 병에 걸려서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게 금연 운동을 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의사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거죠.”

네이버 검색창에 서흥관 박사의 이름을 치면 그의 독특한 이력을 발견하게 된다. 국립암센터 의사이자 대한금연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그가 24년 전, ‘창작과 비평’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것이다. 시 쓰는 의학도, 금연운동가, 역사에 관심 많은 의학박사 등, 그의 폭넓은 활동을 ‘독립정신’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어떻게 연결시킬 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지난 6일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를 찾았다. 흰 가운을 걸치고 나온 그는 모든 질문에 열정적이었다. 덕분에 ‘독립정신’이라는 단어는 그의 직업 정신을 반영한 감동적인 구절로 새롭게 태어났다.

1958년 10월 30일, 전북 완주군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사회의 상류층에서 하류층까지 두루 접하면서 사회의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에게 경제적 불평등은 건강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건강의 불평등은 다시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생각은 1989년에 쓴 시 「어여쁜 꽃씨 하나」에도 잘 나타나 있다. 서울대 병원에서 결핵성뇌막염을 앓다가 하늘로 간 어린이의 사연을 그린 시인데 어려운 형편 때문에 치료를 늦게 받아 죽지 않아도 되는 어린 영혼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점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이밖에 「류준철」 등, 그의 시



정승임  
이화여대 사회학과



조수정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인솔지  
건국대 동물생명공학과

는 사회 불평등이 의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시인이 된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학창시절부터 시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지만 정작 본인이 시인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본과 2학년이던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후 석 달 이상 휴교가 계속되자 한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나라에 대한 고민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다. 그때 썼던 일기가 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학신문사에 보냈는데 바로 다음 호에 ‘의학과 2학년 서홍관’의 이름으로 실린 것이다. 이후 잡지『시문학』이 주최한 ‘전국 대학생 문예 응모전’ 입선을 하게 되었다. 우연한 인연으로 만난 신경림 시인이 의대 다니는 동안 썼던 27편의 시를 읽어보시다가 “홍관이도 이제 등단하지.”라고 말을 꺼내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고, 시집을 두 권 펴냈다.

그의 관심사는 문학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인터뷰 내내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원이 된 것도 역사에 대한 남다른 인식 때문이었다. 의예과 시절 장준하선생의 「돌베개」를 감명 깊게 읽었다는 그는 일제 학도병에서 탈출하여 광복군에 가담했던 장준하가 ‘못난 조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고통스러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후손들에게 역사의 짐을 넘겨주는 못난 조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친일파청산’을 뜻한다. 그는 친일파 후손들이 사회 기득권층이 되고 독

## |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

한 사람의 백 걸음 보다 백 사람의 한 걸음이 낫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혼자 앞서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백 사람이 한 걸음 가야  
 사회가 바뀌고 역사가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친일파 청산에 합의할 때 진정으로 친일파 청산이 이뤄지는 거예요.

립운동가 후손이 어려운 삶을 사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교훈을 역사에 심어주고 후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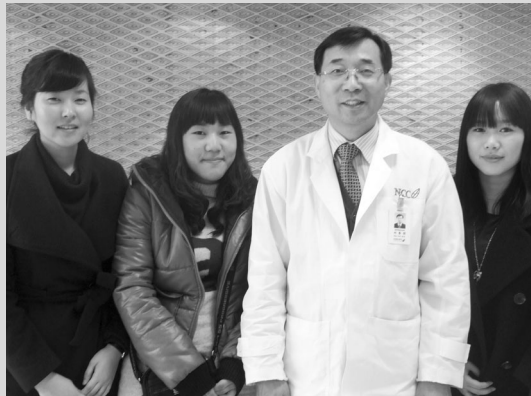
“한 사람의 백 걸음 보다 백 사람의 한 걸음이 낫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혼자 앞서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백 사람이 한 걸음 가야 사회가 바뀌고 역사가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친일파 청산에 합의할 때 진정으로 친일파 청산이 이뤄지는 거예요.”

가슴에 와 닿았던 그날의 명언이었다.

그는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원으로, 지난 2,4기 독립정신 답사에 참가했다. 화북지방을 중심코스로 했던 2기 답사 때, 장준하선생이 탈출했던 쑤저우의 쓰가다 부대를 방문했고, 광복군들이 훈련받던 종남산을 방문했던 것이 감격적이었다고 하면서 장준하선생의 「돌베개」를 학생회원들이 읽어보기를 간곡하게 권했다. 작년 여름에 참여했던 4기 답사는 안중근과 최재형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안중근이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은 정규전을 치렀다가 처참하게 패퇴한 뒤 그 절망감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안중근 자서전」도 한 번씩 읽어볼 것을 권했다.

학생회원들과 함께 답사를 떠났던 그가 학생회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다.





“학생들도 시대의 산물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고민보다는 개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지만 학생 탓으로 돌릴 생각은 없어요. 답사단 학생들이 싸게 중국 여행하려는 마음으로 답사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도 했을 거예요.(우리의 정곡을 찌른 대목이었다)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런 생각으로 참가했더라도 ‘뜻밖에 몽클한 대목이 있었는가’ 지요.”

학생회원들이 답사를 통해 얻은 느낌과 경험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암예방 검진센터 6층에서 시작된 인터뷰는 점심식사와 식사 후 정발산 산책 중에도 계속 이어졌다. 3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청춘이라는 게 꼭 20대의 한 시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것을 즐기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낀다면 그걸로 족하다. 서흥관 박사가 자작사에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라고 고백한 열다섯 살 소년은 아닐지라도, 삶 속에서 독립정신을 추구하는 그는 분명 청춘을 보내고 있었다. ☺

— 꽃피는 계절 — 타계하신 분께  
— 타계하신 분께 — 타계하신 분께  
— 타계하신 분께 — 타계하신 분께  
— 타계하신 분께 — 타계하신 분께

# 백범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II)

학생편집위원  
조영빈  
조정희



조영빈  
홍익대 국어국문학과



조정희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종로구 평동의 경교장(京橋莊)을 찾았다. 선생께서 오랜 망명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집무를 보시던 곳이다. (안두희의 저격으로 선생께서 타계하신 곳이기도 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수정문제에 대한 선생의 생각을 듣고 싶은 마음이었다. 어디서 만나는 게 편하신지 여쭙었더니, “좀 초름하지만 내 있는 곳도 자네들 만나기에 그리 나쁘지 않네.” 하셨다. 지금은 대형 병원의 그림자에 가려 단아했던 옛 모습을 보기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다행히도 4년 전에 정부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복원해 여전히 선생을 서울 땅에서 모실 수 있었다. 다름 아니라 그 이 땅에서 펼쳤던 뜻을 여전히 모시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경교장 입구에 들어서자 선생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인사가 길어질까 선생은 서둘러 우리를 집무실로 안내하셨다. 짙은 갈색의 격자무늬 창으로 둘러진 방안으로 햇볕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늑하면서도 답답한 기운이 느껴지는 방이었지만, 최근 논란이 된 역사 교과서 수정 문제에 대해 여쭙자니 가슴 한 구석이 갑갑해 졌다. 아닌 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한 건국절 행사 논란과 맞물리면서 근현대사 인식 문제에 대해 온 나라가 근심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이기 때문이다. 선생께서도 누구보다 이 문제에 걱정하셨으리라 짐작하니 이야기를 꺼내기 쉽지 않았다.

어느새 녹차 몇 잔이 탁자에 놓였다. 선생께서 한 모금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조심스레 찻잔을 입에 가져다 댔다. 은은한 녹차향이 입안을



메웠다.

“차 맛이 어떠신가?” 선생께서 물었다.

“좋은데요. 특히 향이 참 그윽합니다.” 말씀드렸더니,

넉넉한 미소로 “돌아갈 때 좀 싸가져 가시게.” 하셨다. 선생의 편안한 미소를 보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요새 역사 교과서 수정 문제로 말들이 많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의 주도로 현행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시더니, 이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가장 큰 문제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역사관이 일본의 극우 사관과 유사하다는 점이라네. 일제의 식민 통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주장이지. 난 전부터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최고의 임무는 남의 절제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도 아니 하는 완전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네. 그것이 일제로부터 당했던 수난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런 점에서 일제의 통치를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천격한 발상이야. 일제의 통치가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당시 우리 민족이 광복을 염원했던 것을 반근대적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 일제가 우리 땅에 공장을 지은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였고, 철도를 놓은 것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였다네. 결코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말일세.”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사실과 다르다는 선생의 말씀이었다. 기실 그렇다. 일제 덕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역사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제의 36년 핍박과 수탈을 우리 스스로 합리화 시켜주는 꼴인 것이다. 의연하게 말씀

## | 청년특집 |

하지만 현 정부의 생각과 비슷한 일부의 사람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교과서를 수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만든 역사이지,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없네. 일부가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역사 기술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분란을 야기할 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역사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이지



하시는 선생의 기백에 되레 우리가 힘을 얻어 질문을 이어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국절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광복절을 우리 민족이 자유를 되찾은 날로 기념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건국절도, 광복절도 어차피 다 좋은 의미 아닌가요?”

“말 그대로 건국절은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겠지. 1948년 8월 15일에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이르는 것이지. 남북이 하나 된 정부가 아니라 한쪽만의 정부를 세운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네. 당시에도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어. 통일 정부라는 민족의 바람을 무시한 채 단독 선거를 치르고 정부를 세운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네. 적어도 우리가 여전히 통일을 염원한다면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네.”

선생은 손에 들고 계셨던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정부의 건국절 추진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는 것이기도 하다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명기돼 있으니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것이네. 1945년에 광복이 이루어졌고 3년 후에 그 광복절을 기해서 임시정부 대신 남한의 정부가 세워진 것이지. 임시정부라고 해도 우리 민족의 뜻이 담긴 정부는 1919년에 수립됐다고 봐야지, 남한단독 정부 수립일인 1948년을 건국 원년으로 보는 것은 임정을 주축으로 이어져 온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과한 것일세. 36년간 다른 국가의 통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시간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가 끊긴 것은



▲ 역사교과서 수정 방침에 대한 역사학계의 성명

아니라네. 통치를 벗어나 자주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지. 건국절 제정은 독립운동의 의미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걸세.”

문득 ‘역사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혹자는 역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혹자는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선생께서 생각하시는 역사란 무엇일까? 또 역사 문제로 좌우가 대립한 현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었지만 선생께서 흐트러짐 없이 말씀하셨다.

“완벽한 객관성이란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라네. 모두가 생각이 다르니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겠지. 하물며 뉴라이트 단체들이 주장하는 역사 인식도 그들 나름의 생각이 깃든 것이라고 보네. 중요한 것은 역사가 특정 시각에서 기술되어져선 곤란하다는 것이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역사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네. 하지만 현 정부의 생각과 비슷한 일부의 사람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교과서를 수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만든 역사이지,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없네. 일부가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역사 기술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분란을 야기할 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역사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이지.”

선생의 말씀 끝에 단호한 의지가 엿보였다. 일부의 역사가관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사관에 대한 의지였다.

따뜻했던 차가 어느 틈에 식어 있었다. 다음을 기약해야 할 시간인 듯 했다. 선생은 우리를 배웅하며 “자네들 같은 젊은이들이 역사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선생께서 생각하시는 역사의 의미가 곧 우리 사회 곳곳에 아로새겨질 것을 믿으며 경교장을 뒤로했다. (9)

## | 독립정신 | 시모저모 |

### 임정수립 90주년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전시회, 음악회 그리고 학술회의 등 본회가 기획한 행사들이 치러진다.

3월 1일(일)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9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는 본회와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부, 국가보훈처, 광복회, 백범김구기념사업회 등이 후원한다. 또 임정 수립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다큐드라마가 제작에 들어갔다. 방송은 4월 중순에 KBS, SBS등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 90주년기념사업 - 전시기획 회의

4월부터는 임정수립 90주년 전국 순회 전시회가 열린다.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전시회는 4월 11일(토)부터 21일(화)까지 12일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4월 25일~5월 5일), 광주(5월 9일~19일)등 주요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90주년기념사업 - 방송자문위원회 회의

본회는 이번 전시회와 방송을 위해 각각 자문위원회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전시회와 관련해 2월 4일(수) 기획회의가 있었다. 같은 달 11일(수)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3월 3일(화) 최종적인 전시회 기획을 마무리했다. 방송자문회 역시 2월 11일(수) 협의를 거쳤으며 26일(목) 회의로 다큐드라마의 최종시나리오 검토를 마쳤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 | 독립정신 | 시모저모 |

### 독립선언 기념식



▲ 대한민국독립선언선포 90주년 기념식

‘대한독립선언’ 선포 90돌 기념식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삼균학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 본회 김자동 회장을 비롯해 이병구 서울지방보훈청장, 승병일 광복회 부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오독립선언’이라고 불리는 대한독립선언은 1919년 2월 1일 중국 길림성에서 조소앙, 신채호 선생 등 만주·러시아지역 항일 독립운동지도자 39명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맞춰 조선독립을 요구한 최초의 독립선언으로 알려져 있다.

〈정승임 | 학생 편집위원〉

### 이봉창의사 의거 77주년 기념식 열려



▲ 이봉창의사 의거 기념식

이봉창 의사(1901.8~1932.10) 의거 77주년 기념식이 지난 2월 8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문국진)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본회 김자동 회장을 비롯해 이병구 서울지방보훈청장과 남만우 광복회 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사는 1931년 12월13일 한민애국단에 가입하고 나흘 뒤 김구 단장의 전승을 받으며 일본인으로 위장해 도쿄로 향했다. 그는 일왕 히로히토가 이듬해 1월8일 요요기(代代木) 연병장에서 열리는 관병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 당일 사쿠라다문(櫻田門)에서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폭살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 의사의 거사는 당시 침체기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활동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는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 2009년 「독립정신」 산행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겨울에는 견뎠고 봄에는 기쁘다.’ 한강의 소설 「아기부처」에 나오는 구절이다. 봄이 기쁜 이유는 산행하기에 안성맞춤인 날씨 때문은 아닐까. 3월 28일 토요일, 봄을 맞이해 독립정신 산행이 새롭게 시작된다. 2009년 첫 산행지는 검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로 유명한 인왕산이다. 산행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3월 28일 10시까지 사직공원으로 오면 된다. 석 달 만에 갖는 산행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등반코스 : 사직공원 - 황학정 - 선바위 - 인왕산 정상 - 지하문 - 청와대 앞 - 경복궁 - 인사동
- 준비물 : 간단한 도시락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출구, 도보로 5분  
버스 지선버스 : 7025(사직공원 하차)  
간선버스 : 171, 606, 601, 706, 708  
광역버스 : 9703, 9706  
마을버스 : 종로05
- 문의 전화 : 사무처 간사 김동완  
☎ 011-760-3573  
〈정승임 | 학생 편집위원〉

- 산행일자 : 2009년 3월 28일 (토) 오전 10시
- 산행지 : 인왕산(仁王山)
- 집합장소 : 사직공원 내(사직단)

◆ 단 평







임정서가



##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적의 심장부, 일본에서의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투쟁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내'에서(한반도, 만주, 중국이 아니라 일본 한반도에서)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투쟁의 역사를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아나키스트들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와는 달리 일체의 타협 없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총칼과 폭탄을 들고 가장 강력하게 투쟁한 혁명가들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선진 문물을 배우거나 먹고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한인 유학생들과 노동자들 중 자유 평등의 공동체와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던 청년들이 주로 아나키즘을 수용하였는데, 이들 한인 청년 아나키스트들은 강포(強暴)한 군국주의 체제를 구축한 일본 제국주의의 한가운데에서, 바로 적의 심장부에서 사상 단체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각종 사상운동 및 노동운동 등을 치열하게 전개함으로써 끝없는 감시, 탄압, 압제 속에서도 일본에 대항한 투사들이었다. 이 책은 그 투쟁의 기록이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일본에서 투쟁한 한국 아나키스트들 중 소수의 이름만 기억할 뿐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 적지 일본에서 청춘을 바쳤지만 이름도 없이 쓸쓸히 돌아간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이름을 그들의 투쟁의 기록과 함께 역사의 페이지로 하나씩 불러냄으로써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투쟁의 역사가 '과거의 기록을 넘어 미래의 희망으로' 가는 하나의 작은 길이기를 기대해본다.

### 지은이 김명섭

단국대 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在日 韓人아나키즘운동 研究](2001)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강남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를 위해 투쟁한 아나키스트 이회영](역사공간, 2007), [석농 유근 자료 총서](한국학술정보, 2007), [한국 아나키즘 100년](공저, 이학사, 2004), [재일 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공저, 삼인출판사, 2003)가 있고, 논문으로는 [우당 이회영의 아나키즘 인식과 항일 독립운동](동양정치사상사 2008. 2), [한·일 아나키스트들의 사상교류와 반제연대투쟁](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집, 2006), [차렷·金子文子の 反天皇制 鬪爭과 아나키즘 認識](한일민족문제연구 4집, 2003), [1930년대 재일 조선인 아나키스트들의 활동과 이념—흑우연맹(1928~1936)을 중심으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집, 2003), [재일 조선인 아나키스트들의 노동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03) 등이 있다.

## -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회비납부안내 ◆

본회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1,2월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공성진	30,000	30,000	박원표	50,000	50,000	이신재	30,000	30,000	조회환	10,000	10,000
곽태원	30,000	30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영국		20,000	주세영	30,000	30,000
권오엽		10,000	박익란	30,000	30,000	이영춘	30,000	3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채익진	10,000	10,000
김광재	5,000	5,000	빙인섭	30,000	30,000	이용규	10,000	10,000	최인국	10,000	10,000
김동완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이원혁	100,000	10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동현	10,000		성인제약(주)	100,000		이응국	5,000	5,000	함세웅	30,000	30,000
김보성	10,000	10,000	송재웅	30,000	30,000	이재선	5,000	5,000	허석현	5,000	5,000
김선군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이재을		1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숙경	50,000	50,000	신준수		20,000	이정재	50,000	50,000	황용만	5,000	5,000
김영림	30,000	30,000	심재권	30,000	30,000	이종락	30,000	30,000			
김용덕	10,000		안경환		10,000	이찬희		60,000			
김원규	10,000	10,000	안영찬	5,000	5,000	이창복	30,000	30,000	◆ 특별기부금		
김원유	10,000	50,000	양기홍	20,000	5,000	이학호	5,000	5,000		1월	2월
김 위	20,000	20,000	염근학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주)오도	6,000,000	6,000,000
김위현	50,000	50,000	염기남	50,000	5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승자		30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오승숙	10,000	10,000	이화순	30,000	30,000	김준현	5,000,000	
김정욱	50,000	50,000	오은주	20,000	20,000	인순창	30,000	30,000			
김종숙	10,000	10,000	오정수	10,000	20,000	장봉훈	30,000	30,000			
김진경		5,000	우상호	30,000	30,000	장은기	20,000	20,000	◆ 기념관 후원회비		
김진모	20,000	20,000	유원목	20,000		장 홍	20,000	20,000		1월	2월
김진영	10,000	10,000	윤경자	30,000		정동익	30,000	30,000		1월	2월
김진현	30,000	30,000	윤한옥		10,000	정만기	30,000	30,000	채익진	10,000	10,000
김총환	5,000	5,000	이규중	30,000	3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학근	10,000	10,000	이규호	30,000	30,000	조기식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규환		10,000	조명숙	10,000	10,000	◆ 90주년 기념사업단 특별기부금		
노시선	30,000	30,000	이병윤	10,000	10,000	조영빈		5,000		1월	2월
노용래	30,000	30,000	이병희		10,000	조용환	30,000	30,000	김숙경		5,000,000
문재선		2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조용환	30,000	30,000	김석현		10,000,000
박두근	10,000	10,000	이석희	100,000	10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준현		5,000,000
			이성배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항일과 친일

두 천재 문인의 엇갈린 삶

항일



홍명희 (1888~1968)



일본 대성중학 시절 이광수 최남선과 교우 맺었고, 국망 직후 귀국하여 오산·휘문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1925년 동아일보 주필, 시대일보 사장 등을 지내다가 삼일운동 민족대표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1927년 교장직을 사임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신간회 일에 전념하였다. 부회장을 맡은 그는 좌익과 우익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면서 다양한 세력을 규합하고자 노력하였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반일시위로 확대하기 위해 민중대회를 추진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무산되었고 그를 비롯한 신간회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1932년 출옥한 그는 만주사변으로 전시체제가 강화되자 은둔하여 《임격정》을 집필하여 1928년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를 시작하여 1939년까지 3차례나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해방직후 미완의 상태로 총 10권이 간행되었고, 1948년 남북협상에 참가하였다가 북에 잔류하였으며, 이후 북한 부수상을 지냈다.

친일

이광수 (1892~1950)



창씨명 : 가야마 미쓰오(香山光郎)

1919년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서 활약하였다. 1921년 귀국 후 독립투쟁 무용론을 주장한 <민족개조론>을 발표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1937년 '수양동우회사건'으로 구속되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들어섰다. 1939년 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에 취임하여 <내선일체와 조선문학> <황민화와 조선문학>을 쓰는 등 조선문학을 일제의 선전도구로 만드는 데 앞장섰고 1940년 창씨개명이 실시되자 가야마 미쓰오라고 이름을 바꾸고 <창씨와 나>를 기고하는 등 창씨제도를 적극 선전하였다.

1943년 징병제 실시가 공포되자 일본 유학생들한테까지 찾아가서 학도병으로 출전할 것을 권유하였고 <지원병장행가> <징병제의 감격과 용의> 등을 기고하여 조선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신념으로 일제에 협력한 최고의 이데올로그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기념 전국순회전시회

9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 임시정부가 꿈꾸던 나라



장소/일시	서울 - 서울역사박물관	4월 11일(토) ~ 4월 21일(화)
	부산 - 부산역광장	4월 25일(토) ~ 5월 5일(화)
	광주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5월 9일(토) ~ 5월 19일(화)

주최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서울신문

주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90주년 기념사업단

후원 국가보훈처

협찬 OTO (주)오도